

# 수달보호 위해 안전한 서식환경 만든다

## 전주시, 수달 로드킬 방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키로

전주시가 수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천·삼천 등 전주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환경·동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달 보호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드킬 방지 등 수달 보호를 위해 언더패스 동행구간의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안 언더패스 도로의 펜스 열린구간을 막는 방법 △야생동물 보호 안내판 설치 △생태통로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현재 추진중인 전주천·삼천 수달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반영하는 등 전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달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수달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환경·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물미당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4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하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달 보호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천·삼천 등 전주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환경·동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달 보호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보 및 환경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하는 등 수달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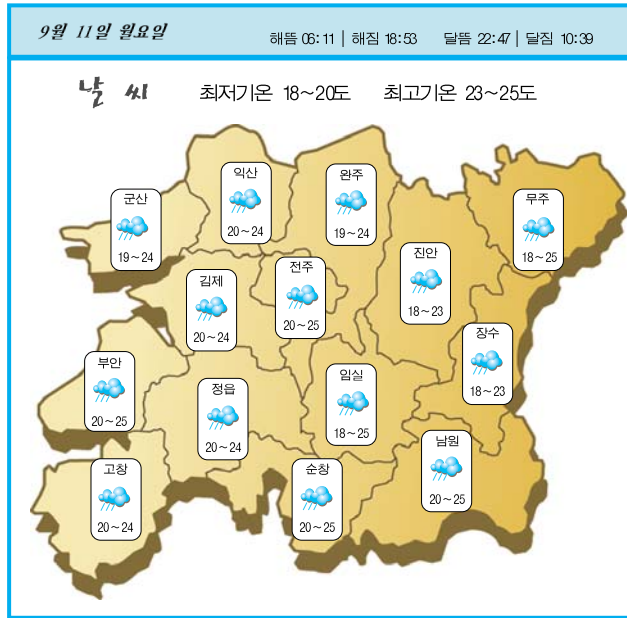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전주천과 삼천에서 멸종위기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이후 생태섬과 이동통로,

생태탐방로 등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해왔다. 또, 삼천 언더패스 구간에는 가드레일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수달 서식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

한 의견들을 반영해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언더패스와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수달 보호에 관심을 갖고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심하천을 유지하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정부, '성실공익법인' 지정

### 기금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 정부 인증 받아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이사장 박병덕)이 기금을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정부 인증인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됐다.

성실공익법인은 외부감사와 전액 공개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공시 출원받은 재산과 공익사업 운용 등의 조건을 100% 충족하면 기획재정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된다.

이번 성실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공익법인인 역할 수행의 성실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성실공익법인 지정은 대학 발전을 위해 모인 소중한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 인증을 받은 것"이라며 "기부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이 담겨있는 만큼 더 바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 교사·전문직 등 40명 평화통일교육 위한 현장체험 연수 실시

### 판문점·비무장지대 등 방문

도내 교사와 전문직인들이 지난 8~9일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등 분단 현장을 찾아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에는 평화통일 현장체험형 연수 추진단과 중등 도덕·사회와 교원 전문직 등 40명이 참여,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 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8일 오전 7시 도교육청을 출발한 연수단은 낮 12시 강원도 철원에 도착해 본격적인 분단현장 체험에 나섰다.

소이산전망대-월정리역-국경선평화학교-철원역-평화전망대-노동당사를 돌아보는 DMZ 맨발로 걸기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뒤 평화전망대 또는

노동당사 앞에 모여 1시간 동안 분단을 넘어 통일을 꿈꾸는 작은 문화제를 연다.

이후 숙소에서 도착해 통일교육 사례 발표 및 공유, 통일탐구토론회와 평가회 및 통일교육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인 9일에는 오전에 한탄강 물레길을 걷은 뒤 오후에는 파주 통일촌과 판문점을 돌아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와 지도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체험형 통일연수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의미있는 통일교육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현장교사들의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 덕진구 인후2동, 14·15일 '행복나눔 바자회'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동장 김종구)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인후2동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장협의회·자생단체협의회가 협력해 추진되는 이번 바자회에는 인후2동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생단체가 참여해 불우이웃을 돕고 주민들 간 단합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인후2동 자생단체들은 역할을 분담해 손수 빛은 참쌀떡갈리와 파전, 어묵, 육개장 등을 직

접 조리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음식 외에도 황태포와 오징어, 미역, 다시마, 견과류, 보리, 현미, 화장품 등 명절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바자품목도 판매한다.

수익금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거주 어르신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 진행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모든 바자회 품목은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행한 티켓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 대한민국 교사합창제 전주서 열린다

### 16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제12회 대한민국 교사합창제가 16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이번 합창제에는 전북중등음악교사합창단을 비롯해 부산 강원, 대전 광주 교사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또 서울음악교사합창단, 대구중등 교사합창단 등 총 7개 합창단이 참여한다.

대한민국 교사합창단 연합회는 2006년에 서울, 대구, 대전교사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2007년에 부산과 전북, 2010년에 광주, 2013년에 강원까지 포함하여 총 7개 지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교사들이 합창을 통한 예술과 교육의 조화, 세대와 지역을 이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영혼의 울림을 통한 풍요로운 심성을 지닌 조화로운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두 번째 합창제를 개최한다.

7개 시·도 교사합창단은 한국가곡, 세계민요, 뮤지컬, 우리나라민요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며 1년에 2회의 실행위원 회의를 거쳐 각 지역에서 주관을 하고 전북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최를 한다.

/정해은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